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11. 27.(금) 10:00
(지 면) 2026.11. 27.(금) 석간

올해 현장 곳곳 누빈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성공적 안착 넘어 더 큰 도약 나선다

- 행안부, 11월 26일 부산서 공무원·실태확인원 등 300여 명 참석 업무 연찬회 개최
- 전국 16개 시도 현장 소통 기법과 복지 연계 우수 사례 발표 및 시상

올 한 해 전국 방방곡곡의 체납 현장을 발로 뛰며 지방세정 혁신을 이끌어온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한자리에 모여 첫해의 값진 결실을 나누고, 내년도 더 큰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26일(목)에 부산 기술보증기금 대강당에서 전국 지방정부 세무공무원과 현장 실태확인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의 한정된 세무 인력만으로는 일일이 살피기 어려웠던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여건을 현장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형편에 맞는 후속 조치로 이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산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 온 지방정부와 전국 실태확인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 해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우수 사례를 전파해 2027년 체납관리단을 한층 더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 "발로 뛴 1년, 현장이 답이었다", 16개 시도 빛나는 성과와 우수 사례 공유

이번 연찬회에서는 전국 16개 시도가 현장에서 일궈 온 체납관리단 운영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단순한 실적 발표를 넘어, 현장 방문 시 마주했던 생생한 경험담과 체납자의 마음을 열었던 소통 기법, 생계 위기 가구를 복지 제도로 연결한 성공 사례 등 지방정부마다 고민하고 노력해 온 다양한 이야기가 소개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과 공감을 얻었다.

영예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수상하였고, 최우수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등 3개 지방정부, 우수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등 5개 지방정부, 장려상은 경상남도 진주시 등 7개 지방정부가 수상하였다.

※ (대상) 서울 강남구 / (최우수상) 부산 해운대구, 인천광역시 본청·서해구, 경기 하남시 / (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 대전 대덕구, 전남광주 고흥군, 전북 익산시, 울산 중구 / (장려상) 경남 진주시, 충남 논산시, 대구 수성구, 충북 청주시, 강원 춘천시, 경북 구미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상을 받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체납관리단 운영 전담 TF팀인 '세정동행단'을 구성하여 현장방문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QR코드, 카카오톡을 통한 체납자 사전방문 예약제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체납액 12억을 징수하고, 27명의 생계형 체납자를 동 주민센터에 복지 연계하는 성과를 이뤘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부산 기초 지방정부 중 선도적으로 체납관리TF를 구성하여 현장방문 대상자를 동·단지·라인별로 묶어 현장방문의 효율성을 높였다.

인천은 본청과 기초가 합심하여 체납관리단 운영 효율성을 내실화하였다. 본청은 모바일로 실시간 실태확인 결과를 입력하는 무서류 실태확인 체계를 만들었고, 서해구는 AI 코딩으로 추가 예산 없이 전국에서 쓸 수 있는 출장 동선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였다. 또한 실태확인원의 경력사항을 고려한 맞춤형 인력 운용으로 실태확인의 효과성을 증대시켰다.

>> 올해 성과를 발판 삼아 내년 운영은 더 촘촘하게, '유형별 표준 모델' 마련 추진

올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만큼, 내년에는 각 지역 여건에 가장 알맞은 형태로 한 차원 더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유형별 체납관리단 표준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체납관리단의 초기 운영 성과와 특징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체납관리단 확대를 위해 ▲확인 대상 선정 및 업무관리 체계 점검, ▲실태확인 이후 정리 보류* 등 후속 조치의 표준화, ▲전담 공무원 인력 확보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등 징수가 어려운 경우 징수 절차를 잠정 보류하는 조치로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재산 발견 시 다시 징수할 수 있음

또한 이번 연찬회에서 발굴된 우수 사례들을 엮어 전국에 전파함으로써 현장의 좋은 아이디어가 다른 지역에도 널리 퍼져나가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내년도에는 체납관리단이 한층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올해 체납관리단이 거둔 가장 큰 결실은 세수 증대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징수 행정이 공정과 복지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실현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첫해의 성과와 현장 경험을 주춧돌 삼아, 2027년에는 국민이 더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빈틈없는 세정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	책임자	과 장	代서은주 (044-205-3831)
		담당자	사무관	조익현 (044-205-3807)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책임자	과 장	김우철 (044-205-3871)
		담당자	사무관	이경은 (044-205-387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 고 **지방정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우수 사례 요약**

광역	기초	세부내용
서울	강남구	**세금을 바르게, 구민과 함께 — 세동이와 함께하는 강남구 세정동행단의 하루** 서울 강남구는 체납관리단 운영 전담 TF팀인 '세정동행단'을 구성하여 현장방문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QR코드, 카카오톡을 통한 체납자 사전방문 예약제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체납액 12억을 징수하고, 27명의 생계형 체납자를 동 주민센터에 복지 연계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전남광주	고흥군	**고흥군 지방세입체납관리단! 공정세정 실현에 앞장서다!** 체납관리단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징수팀장이 체납관리단 사무실에 직접 상주하며 실태확인원을 대상으로 상시 세무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역시 즉시 대응하며 양질의 세무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문자에서 방문까지 단계별 체납독려를 통해 3.6억원의 징수 성과를 이뤘다.
부산	해운대구	**행안부 운영 매뉴얼의 정석 + 맞춤형 권역별 현장확인 = 체납관리 효율 UP!!** 부산 기초지방정부 중 선도적으로 체납관리TF팀을 구성하였으며, 전화 상담 후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동·단지·라인별로 묶어 현장방문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생계형체납자에게 그냥드림 사업을 안내하여 식료품 또는 생필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대구	수성구	**현장에서 찾은 체납, 복지로 이어진 희망** 체납관리단을 체납정리팀, 체납처분팀, 38기동팀, 세외체납팀으로 편성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이나 골목처럼 번호판 영치 담당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의 체납차량을 확인원이 현장방문을 통해 찾아내 영치예고와 납부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인천	본청/ 서해구	**시스템 활용과 맞춤형 인력운영으로 실현한 체납관리단 운영 내실화** 인천은 본청과 기초가 합심하여 체납관리단 운영 효율성을 내실화하였다. 본청은 모바일로 실시간 실태확인 결과를 입력하는 무서류 실태확인 체계를 만들었고, 서해구는 AI 코딩으로 추가 예산 없이 전국에서 쓸 수 있는 출장 동선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실태확인원은 현장 방문을, 상담원 경력이 있는 실태확인원은 전화상담, 외국어 가능 실태확인원은 외국인 밀집지역을 조사하는 등 실태확인원의 경력사항을 고려한 맞춤형 인력 운용으로 실태확인의 효과성을 증대시켰다.

광역	기초	세부내용
대전	대덕구	**반복 체납은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는 찾고, 징수 사각지대는 해소하고** 사업체가 많고 1인가구 및 외국인이 많은 대덕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방문을 통해 사실상 폐업 사업소를 확인하여 장부를 정리하고, 1인가구 위주의 방문확인으로 복지가 필요한 체납자들을 발굴하는 한편 외국인 체납자의 근무사업장 방문확인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였다.
울산	중구	**3대 공공 전산망 융합 기반 「따뜻한 징수·맞춤형 복지 연계」 체납관리단 운영 모델 구축** 지방세시스템, 세외수입시스템, 행복e음 시스템의 DB를 통합하여 복지연계군, 생계형 위기군, 납세태만·상습군으로 체납자를 구분하여 대응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약 4.27억원을 정리했고, 기초수급 연결 2명, 긴급생계지원 16명의 성과를 거뒀다.
세종	본청	**체납관리, 매달 진화하다** 세종시는 3단계의 단계별로 체납관리단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갔다. 8월에는 전화독려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생활 실태 확인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9월에는 전화와 방문확인를 병행하였다. 이에 멈추지 않고 10월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동시 체납자를 통합 방문확인하여 8월 대비 10월에는 실태확인 2배, 납부인원 2.6배, 징수액 2.1배 증대되는 성과를 얻었다.
경기	하남시	**QR코드 기반 모바일 체납 실태확인 시스템 구축** 경기 하남시는, 실태확인 시 체납자 정보와 상담 내용을 손으로 쓴 뒤 다시 전산에 입력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QR코드만 스캔하면 모바일로 실태확인서를 쓸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 개발을 통해 해결하였다. 또한 방문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체납자가 직접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 효과를 높였다.
강원	춘천시	**현장확인를 통한 거주불명 외국인·폐업법인 주민세 체납 정리** 주민세 체납이 있는 외국인들의 실제 거주 여부를 실태확인원이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실제 미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통해 장부 정리를 실시하였다. 서면 중심의 기계적 독촉이 아닌 현장 실태확인 기반의 체납액 정리로의 행정 변화를 이끌어냈다.

광역	기초	세부내용
충북	청주시	**전국 최초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현장확인를 활용한 고의적 납부기피자 발굴 및 가택수색 연계 징수 방안** 체납관리단 현장 실태확인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정밀하게 확인하고,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은 가택수색 사전 통지서 발송 및 경찰과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일출 직후 전격 가택수색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투입 4시간만에 체납액 1,9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충남	논산시	**매뉴얼 속 체납관리단, 현장에서 답을 찾다** 내국인은 전화확인, 외국인은 현장확인를 중심으로 하는 확인체계를 마련하였고, 복지 연계 시 실제 지원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냥드림'사업을 안내하여 생계형 체납자가 먹거리나 생필품을 즉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전북	익산시	**먼저 알리고, 먼저 다가가고, 함께 해결하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 TF와 체납관리단이 통합사무실에 함께 근무하며 상담, 판단, 후속조치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체납액 정리의 속도를 높였다. 또한 체납회수등급을 기준으로, 회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부터 우선 접촉하여 초기 징수성과를 확보하였다.
경북	구미시	**체납고지서 너머, 희망을 잇다** 전화가 2회 이상 미연결되거나 연락처가 없는 체납자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태확인의 효율성을 높였고, 복지급여 신청 후 지원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눔가게 생필품을 지원하여 공백을 보완하였다. 또한 복지 연계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분할납부를 함께 추진하여 복지와 징수 성과를 함께 이끌어냈다.
경남	진주시	**한 번에 살피고, 끝까지 책임진다!** 한번의 전화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함께 안내하고, 한명이 전화독려부터 현장방문까지 맡는 '1인 책임관리체계'를 운영하였다. 이와 함께 소멸시효 임박 체납자를 우선 독려하여 세입 누수를 막으려고 노력하였다. 상담 미완료 체납자는 27년 체납관리단 운영 시 우선 재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계속적으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	본청	**『제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지역사회와 희망을 함께합니다.**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인력을 29명으로 늘리고, 소액체납과 세외수입까지 관리 범위를 넓혔다. 그 결과 지방세입 25억원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 13명을 발굴하였다. 제주 이주 후 어려움을 겪던 이주민이 체납관리단 일자리를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었던 미담사례 등도 소개하였다.